

세천저유소 유류오염 지역 정화 및 공원 조성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세천동 옛 미군저유소 일대가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 바,

저유소 인근에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줄인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유소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오염지역까지 완전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전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당해 저유소 부지를 응급 복원이 된 이후에도 영구 복원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인 휴식 공간(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세천저유소는 1971년 준공되어 2005년 폐쇄되기까지 미군 및 국방부의 유류 수송을 담당했던 시설로써,

그 동안 송유관 시설의 기름유출로 주변 지역이 오염되고 기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지만, 군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최근 실시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결국 오염의 실체가 사실로 확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염사실이 밝혀진 이후 2007년 2월 실시한 국방부의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석유계 탄화수소(TPH)와 벤젠·톨루엔·에틸렌·자이렌 수치를 나타내는 BTEX는 10개소에서 오염기준치를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석유탄화수소(TPH)는 비휘발성인 잔류성으로 인체에 유해성분으로 알고 있는바, 정화복원 이후에도 완벽한 복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건의 드립니다.

첫째, 금번 기름 유출 사건을 구에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변지역까지도 완벽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구복원차원에서 당해 부지를 무상 양여 또는 매수함으로써 주민활용공간(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유소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해부지의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정화방법은 대전시민의 완전한 복구를 바라는 염원에 미치지 못하며 임시 복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복원 차원에서 이 지역을 시민들이 계속 활용하며 감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출된 기름이 대청호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대전광역시장